

Ⅲ. 안면 및 구내촬영

국군수도병원 교정과 송 세 진

지난 호에서 필자는 치과임상용 카메라 장비에 관해 기술할 때에 안면촬영을 위해서는 35mm 카메라 몸체에 초점거리 100mm의 medium telephoto lens가 적합하다고 하였는데, 공간이 허용한다면 135mm 렌즈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렌즈를 구입할 때에 최대구경이 F/1.4인 것과 F/2.8사이에는 엄청난 가격차이가 나므로 안면사진 전용으로 가격이 싼 F/2.8 렌즈를 이용하게 되면 초점을 맞출 때 화면이 조금 어둡다는 불편이 있기는 하지만 전혀 무리가 없다.

필자는 이 장에서 치과교정 및 악교정수술 환자의 사진촬영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술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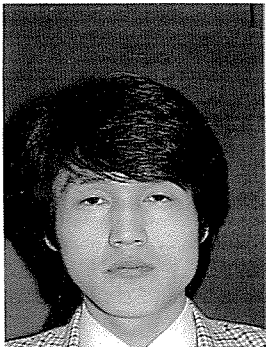


그림 1. 안면의 정면모습. 배경을 짙은 녹색으로 해주면 그림자가 또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머리와 배경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배경은 무광택의 흰색이나 밝은 파스텔 색채를 넣는 것이 좋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림 2. 안면의 측면모습. 측면모습에서 머리는 카메라 방향으로 3~5° 돌려서 눈썹이 보일듯 말듯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렌즈의 barrel distortion에 의해 환자의 profile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3. 가장 흔한 실수로서 필름의 프레임이 잘리는 경우이다. 이는 셔터스피드가 플래쉬에 동조되지 않을 때에 나타난다. 촬영을 할 때는 셔터스피드 다이얼이 제대로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림 4. 촬영은 항상 natural head position 상태에서 해야 한다. 어색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플래쉬의 방향을 고려하여 profile outline을 따라서 보기 싫은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안면모습 (Facial view)

환자의 안면모습은 특별한 목적이 아니고는 정면(frontal view), 측면(lateral view), 3/4모습(3 quarters view)을 촬영하는데, 필요하다면 정면 또는 3/4모습에서 환자가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smiling view)을 추가로 촬영할 수 있다.

가. 프레임링(framing)

안면의 모습은 100mm 렌즈를 사용하여 약 1.5m의 거리에서 조리개를 F/8에 두고 주로 촬영하게 된다. 프레임에서 차지하는 이미지의 크기는 머리와 어깨가 나오도록 하고 가슴 중간을 넘어 서게 해서는 안된다. 술자의 취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임상에서는 보통 카메라를 수직 위치로 하여 촬영한다. 정면모습에서 카메라 렌즈는 적어도 환자의 눈의 수준이 되게 하거나 이보다 3~5cm 더 높게 해 준다. 카메라의 초점은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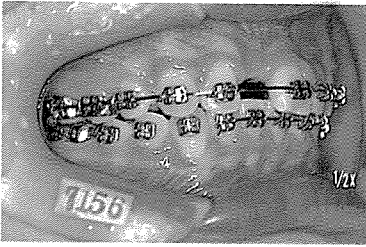


그림 5. 구내사진의 입수모습. buccal mirror를 사용하지 않고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retractor를 후·외방으로 최대한 당겨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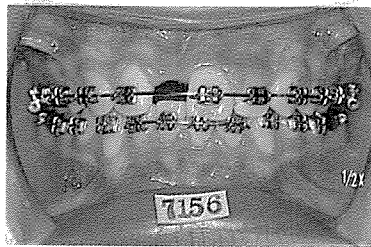


그림 6. 성면모습.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Occlusal plane이 기울어져서는 안된다. 양쪽의 retractor는 균일하게 당기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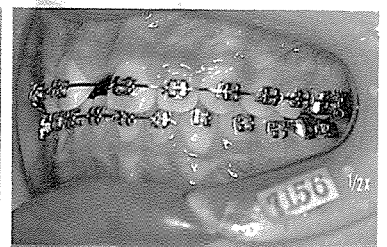


그림 7. 협측모습. 렌즈의 초점은 견치와 제 1소구치 사이에 맞추도록 한다.



그림 8. mirror를 사용하여 입수를 촬영하는 경우. buccal mirror는 좁으므로 수평·수직 상태를 잘 유지하여야 한다. 전방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이미지는 대각선을 따라 기울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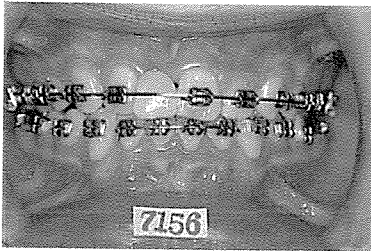


그림 9. 성면모습. retractor로 입술을 균일하게 당겨야 하며 이미지의 중심을 잘 잡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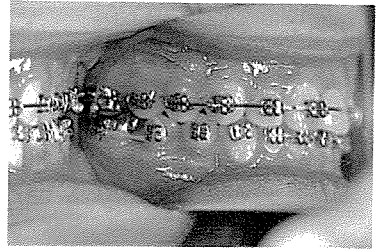


그림 10. mirror는 협측에 약 45°가 되게 한다. 제 2의 조수는 입술이 mirror에 나타나지 않도록 아래 혹은 위로 당겨주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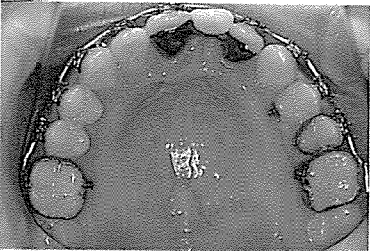


그림 11. 교합면모습. 입술이 선치를 가리지 않도록 양쪽에서 retractor를 약간 상방으로 당기든지 아니면 제 3의 retractor를 사용하여 입술을 약간 위로 당겨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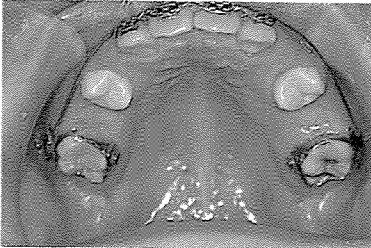


그림 12. 교합면모습. mirror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가 최대한 입을 벌리도록 하여 최대한 교합면이 렌즈축에 대해 수직이 되도록 촬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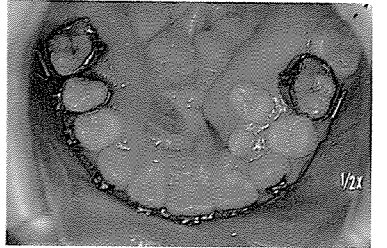


그림 13. 교합면모습. 구개열 환자는 특히 occlusal mirror를 사용하여 촬영해야 한다. mirror를 사용하면 이미지가 반대로 나타나므로 촬영 후에 슬라이드를 거꾸로 뒤집어 주면 본래의 모습이 된다.



그림 14. 협측모습. 부정확하게 촬영한 것으로서 cheek이 충분히 후방으로 당겨지지 않았다. 라벨이 치아나 치은을 가리는 것은 좋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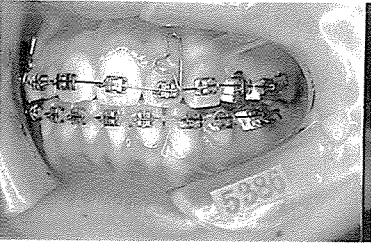


그림 15. 협측촬영에서 반대측의 retractor는 느슨하게 되도록 힘을 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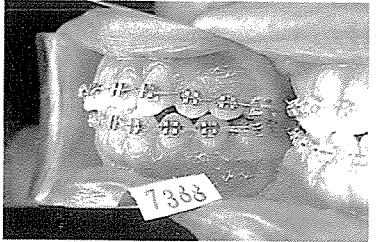


그림 16. 거울철에 차가운 mirror를 사용하여 촬영하면 fogging현상이 나타난다. 반드시 따뜻하게 데워서 사용해야 한다.

➔ (P. 1065에 계속)